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

JAY A. PARRY AND JOHN M. PARRY

번역 이상구 조주희, 1월 27일

가지 말

"How shall we sing the LORD's song in a strange land?" 낯선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노래를 부르리오? 시편 137:4

수세기에 걸쳐 유대인 포로들, 예배자, 여행자, 그리고 순례자들은 "주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모였다. 그들은 시온 산 아래 흐르는 강가에 앉아 "바벨론 강변에서 우리가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시편 137:1). 그들의 입술은 그들의 마음처럼 "주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모였다. 그들의 입술은 그들의 마음처럼 "주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모였다. 그들은 "주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모였다. 그들은 "주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모였다. 그들은

"But again David's experience changed. As he saw that transgressors and sinners were his chief companions, he blessings and favors, while those who really loved God were compassed with difficulties and perplexities that the world knew not. Instead of being troubled, he thought that God was were not equal...."For I was envious at the foolish, when I saw the prosperity of the wicked.... They are not in trouble as other men." CT 153.6

"Ah, I thought, this is not the way God treats his friends. Surely God is not just. Surely God is not just." 1 Bible Echoes, 1888." CT 153.7 - 벨랜 화이트

"David could not understand this till he went into the sanctuary of God, and then, he says, 'Understood I their end.' Surely thou didst set them in slippery places: thou castedst them down into destruction.... It is good for me to draw near to God." 1 Manuscript 4, 1896." CT 153.7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데에 두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멸망에 빠뜨리시더이다.... 나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좋사니'-편 2:4, 1896년." CT 153.7 - 벨랜 화이트

2월 1일 목요일

악인들이 가뭄과 부르는 날에

Read Psalm 37:1-8; Psalm 49:5-7; Psalm 94:3-7; and Psalm 125:3. What struggle does the psalmist face?

시편 37:1, 8, 49:5-7, 94:3-7, 125:3을 읽어 보라.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The psalmist says, 'Trust in the Lord, and do good; so shalt thou dwell in the land, and a verily thou shalt be fed." Psalm 37:3. "Trust in the Lord." Each day has its burdens, its cares and perplexities; and when we meet how ready we are to carry our cares and difficulties to us. Too many borrowed troubles intrude, so many fears are indulged, such a weight of anxiety is expressed, that one might suppose that we are only praying, 'Give us this day our bread' rather than our prayers and to be us a present help in every time of need." CT 121.2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그 땅에 거하게리니 진실로 네가 먹을 것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시편 37:3. "주님을 신뢰하라." 매일 매일의 짐과 염려와 당혹스러움이 있고, 우리는 어려움과 시련에 대해 우리에게 가져가 달라고 얼마나 빨리 우리가 말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불청객이 침입하고, 너무 많은 걱정에 빠져들고, 너무 많은 불안이 자꾸가 표현되어, 우리의 모든 요청을 들어 주시고, 항상 필요한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오늘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구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CT 121.2 - 벨랜 화이트

"In the forty-ninth psalm we read: 'They that trust in their wealth, and boast themselves in the multitude of their riches; none of them can by any means redeem his brother, nor give to God a ransom for him (for the redemption of their soul is precious, and it ceaseth forever): If all would bear in mind, and could in a small degree appreciate, the immense sacrifice made by Christ, they would be ashamed of their selfishness and their supreme selfishness. 'Our God shall come, and shall not keep silence: a fire shall devour before Him, and it shall be very tempestuous round about Him. He shall call to the heavens from above, and to the earth, that He may judge His people. Gather My saints together unto Me; those that have made a covenant with Me by sacrifice.' Because of selfishness and the love of the world, God is dishonored and many have barrenness of soul, and cry: 'My leanness, my leanness.' The Lord has lent means to His people to prove their love and the depth of their professed consecration. Some would let go of Him and give up their heavenly treasure rather than to decrease their earthly possessions and make a covenant with Him by sacrifice. He calls for them to sacrifice; but the fire of the world does their ears, and they will not hear." 2T 197.2

"마흔아홉 번째 시편에서 우리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많은 재물을 자랑하는 자들이 그 들 누구도 능히 자기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그 형제의 속전을 하나님께 대속물을 드리지 못하니 (는 그들의 영혼 구속이 귀하매 영원히 없어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을 명심하고 작은 정도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들은 두려움과 자기 중심성에 대한 부끄럽고 놀라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상도들을 내게로 모으라; 희생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 이기니라 하시매 그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마른 영혼 상태에 이르게 되며 '나의 메마름, 나의 메마름 영혼 상태에 이르게 되며, 나의 메마름, 나의 메마름이여'라고 외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그들을 증명하고 그 분에 대한 그들의 깊이 본질의 깊이를 나타내기 위해 수단을 빌려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소유를 줄이기 보다는 주를 놓아 언약을 맺기보다 하늘을 저버리 버릴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희생을 요구하시지만, 세상의 사랑이 그들의 귀를 닫아 듣지 않을 것이다." 2T 197.2 - 벨랜 화이트

"In his dealings with the Philistines, God had shown how easily at his appointed time he can overthrow the strongholds of superstition, and cast seven gates as the refuge of lies. The Lord often employs his bitterest enemies to punish the unfaithfulness of his professed people. The wicked may triumph for a time as they see Israel suffering chastisement but let them be assured that the wrath of God will end in a fall with crushing weight upon themselves. However the sinner may now rejoice in the rewards of unrighteousness, the Bible says of yet see, the hard heart one day fell, that a life of rebellion against God has been a terrible mistake." ST January 12, 1882, Art. B, par. 8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인들과 다투실 때 정하신 때에 얼마나 쉽게 미신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거짓의 일곱 대문을 쫓아내실 수 있는지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고백하는 백성의 불충실을 벌하기 위해 가장 악독한 원수들을 사용하십니다. 악인들은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것을 보면서 잠시 승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그들의 등에 떨어져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성경은 죄인이 현재 얼마나 불의 보상 그 혜택을 즐기는, 눈먼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반역한 삶이 끔찍한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는 때 마음이 돌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ST 12월 12일, 1882, 예술. A, 문 8. - 벨랜 화이트

Read Psalm 73: 1-20, 27. What is the end of those who trust in fulle things?

시편 73:1-20, 27을 읽어 보라. 시편 기자가 부귀를 의지하는 자들의 종말은 무엇인가? 현인 것을 의지하는 자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벧전 1:17)

"The psalmist David had this experience. When he looked upon the flourishing condition of the wicked he was envious of their success, and said, "Behold, these are the ungodly, who prosper in the world; they increase in riches. Verily I have cleansed my heart in vain, and washed my hands in innocency. For all the day long have I been plagued. But when he went into the sanctuary, and communed with the Lord, he no longer desired the portion of the wicked; for then he understood their end. He saw that their way led to destruction at last, and their prosperity was but for a moment. Envy had no place in his heart. His rebellious spirit bowed in humble submission to his God, and he declared, "Thou shalt guide me with thy counsel, and afterward receive me to glory." He saw that the guidance of the Lord was of infinitely more value than all the temporal prosperity of the world; for the way of the Lord kept the feet in the paths of righteousness that lead to eternal glory." ST February 3, 1888, par. 3

"시편 기자 다윗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악인들의 번영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들은 세상에 번영하는 불경건한 자들이며 재물이 늘어나는 자들이로다. 진실로 내가 헛되이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결백하게 내 손을 씻었도다. 하루 종일 나는 괴롭힘을 당했도다." 그러나 그가 성소에 들어가 주님과 교제했을 때, 그는 더 이상 악인의 몫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의 종말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이 파멸로 향하는 길이라고 그들의 번영은 단지 잠깐 동안일 뿐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시기심이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세상의 모든 현세적 번영보다 무한히 더 가치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길은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는 의의 길에 발을 지켜 하기 때문입니다." ST 2월 3일, 1888, par. 3 - 벨랜 화이트

2월 2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Some are always fearing, and borrowing trouble. Every day they are surrounded with the tokens of God's love; every day they are enjoying the bounties of His providence; but they overlook these and their blessings. Their minds are continually dwelling upon something disagreeable which they fear may come; or some difficulty may really have which, though small, blinds their eyes to the many things that demand gratitude. The difficulties they encounter, instead of driving them to God, the only source of their help, separate them from Him because they awaken unrest and repining. SC 121.3

"어떤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하며 고난을 빌미로 삼는다. 그들은 매일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들 속에 둘러싸여 있고, 매일 하나님의 섭리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 한재의 축복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쾌한 일에 계속 머물러 있거나, 비록 작지만 감사를 요구하는 많은 것들에 눈을 멀게 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그들을 유일한 도움의 원천인 하나님에로 인도하는 대신, 불안과 정직함 일깨워 그분과 분리시킵니다. SC 121.3 - 벨랜 화이트

"Do we well to be thus unbelieving? Why should we be ungrateful and distrustful? Jesus is our friend; all heaven is interested in our welfare. We should dwell upon the perplexities and worries of everyday life to free the mind and cloud the brow. If we do we shall always have something to vex and annoy. We should not indulge a selfish mood and treasure up our wrongs, but does not help us to bear trials. SC 122.1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이 좋은가? 왜 우리는 배은망덕하고 불신하는 것이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며, 온 하늘이 우리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의 당혹스러움과 걱정으로 마음을 초조하게 하고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해소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괴롭히고 성가시게 할 무언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지치게 할 뿐 시련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근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SC 122.1 - 벨랜 화이트

"You may be perplexed in business; your prospects may grow darker and darker, and you may be threatened with loss; but do not become discouraged; cast your care upon God, and remain calm and cheerful. Pray for wisdom to manage your affairs with discretion, and thus prevent loss and disorder. Do all you can on your part to bring about favorable results. Jesus has promised His aid, but not apart from our effort. When, relying upon our Helper, you have done all you can, accept the result cheerfully." SC 122.2

"어려운 사업을 하면서 당황할 수도 있고,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고 손실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침착하고 쾌활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의 일을 신중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혜를 위해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유리한 결과를 가져 가는 것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분의 도움을 약속하셨지만, 우리의 노력과 별개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력자 이시며 최선을 다했을 때, 그 결과를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SC 122.2 - 벨랜 화이트

추가 연구를 필요하면 연락드리 모이와세요:
Whatsapp: (+82)01-954-0737
contact@adventistbookshop.com